표제: <u>앞으로 발표하게 될 2020 년 센서스 인구조사 선거구 획정 데이터는 미국의 보다</u> 명확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(영어)

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수를 세는 조사원

2021 년 7 월 12 일

미국 인구조사국은 8월 16일까지 입법 선거구를 획정하는 데 사용하게 될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에서 생성된 심층 인구 통계 (영어됨)를 발표할 예정입니다.

이는 총 인구수가 3 억 3,140 만명으로 나타난 4월 26일에 발표된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첫 번째 결과 (영어됨)에 이어 나오는 발표입니다. 첫 번째 발표는 미국하원의 435개 의석 중 각 주 (state)의 몫을 결정했습니다.

8월 데이터는 다음을 포함하여 주 (state), 카운티 및 시 (city)(인구 센서스 블록수준까지)별 국가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첫 인상을 제공합니다:

- 인종 및 출신 민족.
- 투표 연령 인구.
- 거주 및 비어 있는 주택.
- 요양원이나 양로원, 교도소, 병영 및 대학 기숙사와 같은 집단 주거 시설에 사는 사람들.

2010 년 센서스 인구조사 이후 인근 지역의 출신 민족, 인종 및 투표 연령 구성이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보여주는 것 외에도, 이러한 세부 데이터는 대부분의 주 (state) 입법부가 선거를 위해 선거구를 획정하거나 정치적 경계선을 변경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.

"이 데이터의 주요 목적은 주 (state)들이 그들의 선거구 경계선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지만, 이 통계는 각 카운티, 각 시 (city) 및 각 블록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지도 알려줍니다"라고 센서스국의 선거구 획정 및 투표권 데이터 책임자인 제임스 화이트혼(James Whitehorne)이 말했습니다. "이 정보는 미국 전역에 걸쳐 우리 지역사회의 인구에 대한 상세한 인구 통계학적 모습을 제공할 것입니다."

8월 발표는 정부가 2010년 및 200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서 사용한 "레거시 (legacy)" 형식이 될 것입니다. 주 (state)들은 이 파일을 사용하여 선거구 획정 노력을 시작할 것입니다. 9월 30일까지, 센서스국은 동일한 데이터를 data.census.gov 에서 인터넷을 통해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형식으로 제공할 것입니다.

<u>새 동영상</u> (영어)에서 제임스 화이트혼 (James Whitehorne) 및 센서스국의 인종/출신 민족 연구 및 대민 지원 활동 책임자인 니콜라스 존스(Nicholas Jones)가 앞으로 발표하게 될 데이터에서 기대할 사항에 대해 논의합니다.

자세한 정보는, <u>2020 년 센서스 인구조사 선거구 획정 파일 보도 자료집</u> (영어)을 참조하십시오.